

‘바늘(針)’의 語彙史

李秉根*

1. 머리말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세 요소인 의(衣), 식(食), 주(住) 가운데 ‘衣’와 관련하여 縫針으로서의 ‘바늘(針)’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다 한다. 구석기시대의 유물로 물고기의 뼈로 만든 바늘(針)이 발굴된 바를 알고 있고, 쇠(鑄鐵)가 없어 돌바늘(藥石=砭)을 침(鍼) 대신 사용했던 일도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신라 芬皇寺의 석탑에서 금·은제 바늘이 발굴된 일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바늘은 옷(衣)을 짓기 위한 기구의 하나로서 특히 바느질을 생활화해 온 여인네들에게는 빈부귀천 관계없이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애지중지 써오던 바늘이 부러졌을 때에는 여인네들의 애석해 함이 한없었던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조침문(弔針文)> 이외에도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불리어온 민요 <바늘노래>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바늘이야 바늘이야 양주땅의 바늘이야
나랏님의 곤룡포도 널로하여 지어내고
나라시녀 춘추복도 널로하여 지어내고
거날날로 불간하야 두동가리 상사났네
상사난들 버릴소냐 님수대를 후어다가

* 본과 교수

대동강에 던졌드니 살찬고기 낚아다가
 응후화집 걸어놓고 대성통곡 하고저라.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오면서 지나간 역사를 지녔던 ‘바늘’은 그와 관련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형성되어 왔다. 기구로서의 ‘바늘’과 관련하여, 바늘로 옷을 짓거나 꾸미는 행위는 ‘바느질’이요, ‘바늘’을 보관하는 기구로는 ‘바늘통, 바늘방석, 바늘겨레, 바늘쌈지’ 등등이 있고, ‘바느질’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과 천쫓가리들을 담아 두는 그릇은 ‘반질고리’라 한다. 그리고 바늘의 부분명칭으로 ‘바늘귀, 바늘날’ 등도 있으며 ‘바늘’을 합성어 요소로 취하는 ‘도깨비-바늘, 바늘-두더쥐’ 등 동식물명도 꽤 있다. 그런가 하면 ‘뜨개질바늘’ 이외에 ‘시곱바늘(cf. 時針·分針(刻針)·秒針), 주삿바늘(=注射針)’ 등에서의 ‘바늘’이 확대된 의미로 쓰인 것들도 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라는 속담이 연상될 정도다. 과연 ‘바늘’이란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 ‘바늘’을 포함한 말들의 語彙史는 어떠했을까. 이것이 이 글의 목적하는 바인데, 끝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서 선불리 어원과 어휘사를 서술할 경우에는 바늘에 찢려 버릴 수도 있고, 바늘 자체가 두 동가리 상사가 나서 대성통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바늘을 반질고리에 묻어두느니만 못할지도 모른다. 비록 바늘에 찢려 피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바늘’의 어휘사에 대해서 관련어휘들을 포함하여 ‘바느질’을 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을 쓰는 필자의 현재 심정이다.

2. 지금까지의 관심

지금까지 ‘바늘’이란 단어의 역사에 관한 관심은 지극히 단편적이었고, 그것도 縫裁具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관련어휘로 확대시키지도 않았다. 이른 시기의 관심으로는 黃允錫(1729-1791)의 《華音方言字義解》에서 그 書名에 걸맞게 ‘바늘(針)’을 俗呼針線之針爲 바늘 蓋縫字古有방音 而늘則刀字之方言也라 하여 ‘*방늘(縫刃)’이란 混種語(hybrid)로 본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밖에는 대체로 20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흔히 단어형성을 논의

하는 가운데 이 ‘바늘’을 언급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어원을 표시하는 경우들이었고, 그밖에 비교언어학적 관심이나 문헌주석의 관심도 부분적으로 있어 왔다.

李崇寧(1956)과 李秉根(1999) 등에서는 ‘바늘’을 ‘*반+올’로부터 왔을 가능성을 비쳤는데, 전자의 해석은 제주도방언의 ‘바늘<반+올>’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후자의 해석은 ‘지느러미(奔水)’를 ‘*진+올+어미’의 구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바늘’도 李崇寧(1956)에서와 같이 파생어로 보려 하였다. 이 해석에 고려된 증거는 ‘지느러미(<*진+올+어미>’의 선행 어근 ‘*진’에 유사하게 가정한 ‘반질고리’의 선행 어근 ‘*반’이었다. 李賢熙(1987)에서도 접미사 ‘-올/을’이 국어에서 대단히 분포가 넓은 접미사라 하면서 사물 개념의 ‘-올/을’의 예시로 ‘바늘, 마늘, 가를, 바를, 수를’ 등을 들었는데, 역시 李崇寧(1956)을 참조한 것이었다.

어원표시를 했던 사전들에서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고 있다. 한글학회의 《큰사전》(3, 1950)에서부터 《우리말 큰사전》(1992)에 이르기까지 ‘바늘’에 대해서는 어원표시가 없으나 ‘반질고리’를 ‘바느질고리’의 준말로 처리하였는데, 북한의 사전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바느질고리=반질고리’로 처리하고서 ‘반질고리’는 ‘바늘+질+-사+고리’로 분석하였다.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에서는 [반(√바늘)+-질(<질>)+√고리]로 처리하여 결국 위의 사전들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두 가지의 차이 있는 해석이 있는 셈이다. 즉 그 하나는 ‘바늘(<바늘>’ 자체를 어원으로 풀이한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를 다시 분석하여 ‘*반+올’과 같은 파생명사로 풀이한 해석이다. 이에 따르면 ‘반질고리’는 [바늘+-질+-사+고리]와 [반+질+-사+고리] 정도로 풀이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바늘+-질 ...]의 해석에서는 [바늘+-질]>[바느질]>[반지[리]]에서의 ‘-’탈락을 또는 ‘바늘>반’을 음운사에서 어찌 증명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반+-질 ...]의 해석에서는 [반+올]>[바늘]은 가능성이 크나 ‘*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해석 밖에 몇 가지의 다른 해석들도 있었다.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G.J.Ramstedt(1949)에서는 *pal-nil(needle)의 합성어를 가정하였고,

G.J.Ramstedt(1982)에서는 일본어 ‘hasi’ ‘needle’<? *pa+x’의 기술을 추가하여 놓았다. 그리고 李男德(1985)와 안병호(1985)에서도 일본어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전자에서는 ‘바늘’과 ‘Fasi’를 대응시키려 하였고 후자에서는 각각 ‘바느리’와 ‘hanari’를 재구하려 하였다. 한편 안옥규(1989)에서는 《계림유사》의 ‘針曰板捺’을 ‘바(布)+늘’로 풀이하여 “<베>에 쓰는 연장”이란 뜻으로 풀이하였다(김인호 《조선어어원편람》(상)에서도 같은 해석을 피하였다). 김민수 편(1997)에서도 이들을 참조하여 ‘√발[刃]+√늘[刃]’과 같이 ‘칼[刀, 刃]’의 뜻을 지닌 두 말이 겹쳐진 말이라 하였다. 여기서의 해석은 ‘반질고리’로부터 가정할 수 있는 ‘*반’과 위의 ‘*발’과의 관계를 어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ㄴ’과 ‘ㄹ’은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아직은 충분한 증거자료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늘’의 어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바늘’을 표시하는 漢字語의 연구는 전혀 시도된 바 없다. 이제 문헌상의 자료와 방언상의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바늘’의 어휘사를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 漢字語를 포함한 관련어휘까지 확대시키면서 재검토해 보려 한다.

3. 문헌상에서 보이는 ‘바늘’의 語形들

‘바늘’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있는바, ‘針’이라 쓰였고 또 신라 궁중의 바느질을 맡아보던 관아를 ‘針房’이라 불렀으나 이 한자어 이외에 고유어가 표기되지는 않았다. ‘바늘’의 고유어 기록은 12세기 중엽의 기록인 《계림유사》에 비록 한자를 빌려 쓰기는 하였으나 처음 등장한다. 즉,

針曰板捺

이 ‘板捺’을 대체로 중세어의 ‘바늘’에 대응시켜 왔다. 즉 音讀字로 본 셈

인데, 그 의미가 縫裁具를 뜻하는 것이겠으나 醫療器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15세기 이후에도 이 ‘바늘’이 계속 쓰여 왔는데, 어떤 문헌에는 ‘바늘’로 표기되어 있다.

- 바늘 아니 마치시면(若不中針, 龍歌 51章)
- 저믄 아드론 바늘 두드려(稚子敲針, 杜諺 초 七 4a)
- 무리 바늘 곧흐여(針如水, 杜諺 초 十六 56a)
- 芥子 | 바늘 마조미라(牧牛 43)
- 바늘와芥子왜 서르 마자(圓覺 序 69b)
- 한 바늘놀홀 세며(圓覺 序 69b)
- 바늘와芥子왜 서르 마줌 곧흐니라(圓覺 序 70a)
- 芥子 | 바늘놀해 맛게 호미(圓覺 序 69b)
- 꿇거시 그 모기 바늘 곧흐며(法華 二 120)
- 바늘 瘡口에 브티면 바늘리 제 나느니라(在針瘡口上其針自出, 救急方 下 7a)
- 바늘리 가치 들어든(針入皮膚, 救急方 下 7a)
- 바늘침俗作針(鍼, 訓蒙 中 14b)
- 鍼 바늘침(針, 新增類合 上 28a)
- 바늘도 실도 어찌(樂學軌範 處容)

이상의 ‘바늘’과 ‘바늘’은 제2음절 이하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운변화인 ‘>’의 변화를 보인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지 않는다. ‘바늘’은 縫裁具 또는 醫療器의 일종을 가리키는 의미로 ‘針, 鍼’에 대하여 모두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바늘’의 표기를 보인 예가 있다.

문저 실썸 바늘로써(先用線針, 馬經諺解 상 94)

이 《馬經(抄集)諺解》는 표기가 15세기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혼란된 점이 많은데, -ㅈ-의 경우에 ‘늘라디(上 5a), 늘나(上 34b)’ 등과 같은 -ㅈ-과 -ㄷ-의 표기가 보이고 대격조사 ‘-를’이 개음절 다음에서 ‘뜯기늘(上 1a), 오뵝니늘(上 5a), 팔세늘(上 10b), 고기늘(下 10b)’처럼 ‘-늘’로 표기된

것과 ‘물론’처럼 ‘-ㄹ’ 다음에서 ‘은>ㄹ’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니(調理, 卜 4b)’와 같은 한자어를 제외하면 ‘바를’처럼 한 형태소 내부의 두 모음 사이에서 ‘ㄹ>ㄹ’의 표기나 그 반대의 표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는 ‘바를’이 ‘바늘’의 표기로 볼 가능성은 있겠으나 ‘바늘’ 이외에 ‘바를’이란 어형이 문헌상에서 쌍형어로 별도로 존재했는지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다.

근대어에서도 그 대부분이 ‘바늘’로 때로 ‘바늘’로 쓰여 중세어와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대어에서는 ‘·>ㅡ’의 변화를 겪은 ‘바늘’로 굳어져 이어지고 있다. ‘바늘, 바늘, 바늘’ 등의 일부 방언형을 제외하고서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고려시대 중엽 이후로 ‘*바늘’이 기본적으로 쓰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의미상으로는 ‘바늘’이 ‘針’ 또는 ‘鍼’으로 쓰였는데, 흔히 ‘縫裁具(또는 綉針)’으로서의 ‘바늘’로 쓰였다. 더러 《圓覺經諺解》(1465) 등에 ‘바늘늘ㅎ’과 《訓蒙字會》(1527) 등에 ‘바늘침 鍼’이 보이기는 하나 醫療器 또는 근대적인 ‘주사바늘(注射針)’의 의미로 쓰이는 ‘바늘’은 자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한자어 ‘침(針)’이 현대어에서는 오히려 전통의학의 醫療器로서의 ‘鍼’을 뜻하면서 ‘바늘’은 이 경우에는 자주 쓰이지는 않게 되었는데, 문헌상으로 보면 예컨대 《救急簡易方諺解》(1489)에서

침으로 머리털 떨어피내야(以針刺頭上血 救急簡易方 一 21a)

침으로 짜버리라(以針決去之, 一 47b)

침호더 니에 다 들게 호면(針 … 至齒, 一 55a)

침주고 쓰면 살리라(針灸遂活, 63b)

침으로 떨어피내오(針 … 出血, 二 40b)

침으로 찢어혈위(針刺破, 二 76a)

또 큰 치미어나 저고맛 같히어나 혈위 피나게 호여(亦可以鉞刀破之出血, 二 90b)

와 같이 ‘針’이 모두 ‘바늘’이 아니라 ‘침(鍼)’의 뜻으로 연해되었던 것이고, “침으로(N을)떨-/짜-”나 “침ㅎ-, 침주-” 등과 같은 어휘관계로 맺어 쓰인 것이다. 《馬經(抄集)諺解》(1682)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18세기 말엽

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倭語類解》에서는 한자어 표제어 ‘針’에 대하여 아예 ‘침 침’으로 釋音을 달고 있는데 이미 《譯語類解》《同文類解》《蒙語類解》 등에서 ‘下針(鍼)’에 대하여 ‘침주다’로 풀이하엿었다.¹⁾ 이러한 사실은 ‘바늘’이 ‘縫裁具’의 ‘針’에서 ‘醫療器’의 ‘鍼’으로 확대되었다가 후자의 경우에는 한자어 ‘침(針, 鍼)’으로 굳어지면서 ‘바늘’과 ‘침’을 의미상으로 각각 구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字類注釋》(1856)의 경우다. 즉 ‘針 바늘침鍼全縫 刺病又 바누딜침縫也刺也’와 ‘鍼 침소…’으로 풀이하고 있어 ‘針’은 ‘縫, 刺(病)’의 두 뜻으로 쓰이되 전자는 ‘바늘’계통으로 풀이하고 후자는 ‘鍼’을 ‘침’으로 풀이하고 있다. 《新字典》(1915)도 마찬가지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15세기 말엽에 의미차에 따른 분화가 시작되어 醫療器로서는 한자어 ‘침(鍼)’이 근대어에서 거의 굳어졌고 이것이 현대어로 넘어오게 된 셈이다.²⁾

한자어 ‘침(針)’ 이외의 고유어로서의 ‘바늘(>바늘)’은 이를 포함한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도 ‘바늘, 바늘’만이 나타나는 단조로움을 역시 보인다. 예컨대

바늘실~바늘실(針線)

바늘질(裁縫) 바늘질갑(裁縫錢) 바늘질뚝(針脚兒) 바늘질호는이(裁縫的) 바늘질아치(裁縫)

1) 다만 《譯語類解》의 ‘裁縫’ 속에 ‘人針 굴근바늘, 綉針 슈뜨는 바늘, 針子 바늘, 小針 존바늘’ 등과 같이 ‘바늘’이 쓰였는데, 여기서 표제어들은 본래 漢語였던 것이다. 다만 ‘一列針 횡침’과 같은 한자어 ‘行針’으로의 풀이가 있다.

2) 字典에는 ‘針’이 ‘針’과 ‘鍼’의 두 의미로 쓰일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未分化는 역대 문헌을 이해하기 위한 주석적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李晔光의 《芝峰類說》(1614/1634)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古者未能鑄鐵以石爲鍼 故謂之藥石 石卽砭也 說文 砭字以石刺病也 然則以鍼代砭 出於後世耳”와 같이 ‘鑄鐵’이 없어 ‘石’으로 침(鍼)을 만들어서 ‘藥石’이라 하여 石=砭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說文》의 풀이를 통해서 보면 ‘砭’을 쇠로 만든 ‘鍼’으로 대신하게 된 것이 후세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돌침(石鍼)’은 ‘刺病’에 쓰이는 바늘(鍼)인 것이다. 《廣事物譜》에서도 ‘砭’에 대하여 “以石刺病 後以針代”라 하였고, 柳僞의 《物名攷》에서도 ‘砭石’에 대하여 古者以石代鍼用刺驗穴이라 하여 ‘쇠바늘’에 앞서 ‘돌바늘’이 쓰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돌바늘’ 즉 ‘돌침(石針)’은 《漢書》에 이미 등장했었는데, ‘箴石’이라 했으며 “醫經箴石湯火所施”라 했다.

바늘겨러~바늘겨레(針札) 바늘걸이~바늘걸이(針札子)
 바늘귀째다(꿰다)(紉針) 바늘썩는실썩(紉頭)
 바늘통(針筒, 針桶)
 바늘날(針)

위의 여러 자료들 중에서 ‘바늘실, 바늘질’의 ‘바늘’형은 말할 것도 없이 [-grave]의 자음인 ‘ㅅ, ㅈ’으로 인한 ‘ㄹ’탈락형인데, 다만 ‘바늘실~바늘질’과 같은 수의적 교체형을 보이는 것은 단어경계를 가지는 ‘바늘’과 ‘실’의 대등적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바늘질’의 경우는 ‘바늘+질’의 구성을 갖는 파생어어였기에 [-grave] 자음들 앞에서의 ‘ㄹ’ 탈락이 이전 시기에는 필수적이었던 관계로 이러한 수의적인 교체는 보이지 않는다. ‘바늘질’은 ‘裁縫’의 의미로 주로 쓰였다. 이의 경우를 보면 파생어나 합성어와 같이 굳어진 단어 속에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의미변화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사실은 언어변화에 있어서 무척 흥미롭다. 위의 파생어나 합성어까지 보더라도 조선 시대에는 ‘바늘(>바늘)’ 이외에는 딱 형태는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19세기 말엽의 서양언어-한국어 대역사전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이 때에도 ‘바늘(aiguille, needle)’과 ‘침(acupuncture, acumpuncture)’은 구별되었던 것이다. 다만 한자어의 구성요소로서의 ‘침(針)’은 縫裁具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기도 한다.

《한불조언》(1880) par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바늘 PA-NÄL,-I 針 Aiguille.

바늘질 PA-NÄ-TJIL,-I 針工. Couture;art de coudre; travail de coudre.

침 TCHIM,-I. 針. Acuponcture, aiguille (d’acuponcture), lancette, aiguillion, aiguille.

침모, TCHIM-MO, 針母. Couturière.

침방, TCIM-PANG, -I, Chambre de couture; atelier de couturières.

침선ㅎ다, TCHIM-SYEN-HÄ-TA. 針線. Couture; coudre.

침통 TCHIM-HTONG, -I. 針筒 Étui à lancette.

침장이 TCHIM-TJANG, -I. 針匠 Celui qui donne l’acuponcture;

médecin pour l’acuponture.
침주다, TCHIM-TJOU-TA, -TJOU-E, -TJOUN 下針. Donner
l’acuponture, pique.

《한영저번》(1890) by H. G. Underwood, A. M.

바늘, 針, Needle.

바느질, 針工, Sewing, needle work.

침, 針, A lance, a lancet.

침모, 針母, A needle-women, a seamstress.

침방, 針房, A sewing room.

침선호오, 針線, To sew.

침장이, 針匠, One who use the lancet, a surgeon.

《한영저번》(1897) by J. S. Gale, B. A.

바늘 s. 針(*침) A needle.(웨이다)

바늘귀 s. The eye of a needle.

바느질 s. 針工(바늘-*침) (장인-*공) Sewing. See 침선

침 s. 針(바늘) Needles-for acumpuncture.(맞다)(눅타)(주다).

침구하다 s. 鍼灸(바늘)(뜸) To perform acupuncture and cauterize with
dried artemisia.

침맞다 s. 마자;준 To be lanced—in acupuncture. Opp. 침눅타.

침모 l. 針母(바늘)(어미) A seamstress.

침눅타 s. 下針(아래-*하)(바늘-*침) 노하, 흔 To lance—in acupuncture.
See 침주다.

침방 l. 針房(바늘)(방) A sewing room—in the palace.

침통 s. 針筒(바늘)(통) A needle case.(Acupuncture).

침장이 s. 針匠(바늘)(장인) One who prectices acupuncture. A leather
shoe-maker.

침주다 s. 下針(아래-*하)(바늘-*침)어;준 To lance—in acupuncture. See
침눅타.

침척 l. 針尺(바늘)(자) A “yard” measure. See 목척.

위의 《한영저번》(1897)의 자료에서 縫裁具로서의 ‘針’으로 이루어진

漢字語는 그 첫음 ‘침’이 長音(l.)으로 표시되고 醫療器로서의 ‘針’은 모두 단음(s.)으로 각각 구별하여 표시된 것이 극히 흥미롭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朝鮮語辭典》(1920)에서도 ‘바늘’은 ‘裁縫에 쓰이는 針(縫針)’으로 풀이되었다. 이 경우 ‘針線’과 같이 한자어의 첫음절 ‘針’은 역시 長音으로 표시되었다. 그리고 한자어 ‘침(針)’ 자체는 주로 의료기로 쓰였는데, 다만 이 ‘針’을 포함한 한자어에서는 위의 대역사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경우가 선택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들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관련어휘로 ‘반질고리’가 있다. 바느질 도구나 재료를 담은 그릇·고리·상자를 뜻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단어는 20세기에 나온 사전들에 뒤늦게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언어형식의 등장과는 달리, ‘반질고리’라는 기구의 존재로 보아 이 단어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단지 기록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 듯하다. 조선총독부 편 《朝鮮語辭典》(1920)에는

바느질縫 裁縫.(針工·針線)
 바느질고리籠 針·絲類を入るる箱子.(반질고리).
 반질고리籠 「바느질고리」に同じ.

와 같이 ‘반질고리’를 ‘바느질고리’의 준말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문세영의 《朝鮮語辭典》(1938)에서는 ‘바느질’을 올리면서

바느질-고리籠 「반질고리」의 사투리.
 반질-고리籠 바느질에 소용되는 바늘·실·가위·골무·기타 헌것을 담은 그릇. 바느질그릇.

과 같이 ‘반질고리’를 표제어로 삼되 ‘바느질고리, 바느질그릇’ 등은 비표제어로 처리하였다. 이윤재의 《표준조선말사전》(1947)에서도

바느질-고리籠 → 반질고리.
 반질-고리籠 바느질 재구를 담은 그릇.

과 같이 문세영(1938)과 거의 같은데,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

(1950)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사전과 비슷하게 처리하였다.

바늘[이] 가늘고 가름하고 끝이 뾰족하며 머리에 구멍이 있는 쇠. 실을 꿰어 바느질을 하는 데에 쓰임.

바느질고리[-꼬][이] 바늘, 실, 가위, 골무, 형짚 따위의 바느질 제구를 담은 그릇. …

반질-고리[이] “바느질고리”의 준말.

침(鍼)[이] 사람의 몸에 있는 혈(穴)을 찔러서 병을 다스리는 데에 쓰는 바늘.

침공(針工)[이] ① 바느질을 하는 기술 ② 바느질 솜.

침공(針孔)[이] ① 바늘귀 ② 바늘이 드나든 구멍.

침공(鍼孔)[이] 침을 맞은 구멍.

침구(鍼灸)[이] 《한의》 침질과 뜸질.

침모(針母)[이] 남의 집에 딸려서 바늘질을 맡아 하고 …

침방(針房)[이] 《고제》 궁중(宮中)에 있는 바느질하는 곳.

침선(針線)[이] 바늘과 실. 곧 바느질하는 일.

침술(鍼術)[이] 《한의》 침을 주어 병을 다스리는 의학.

침의(鍼醫)[이] 침술로 병을 다스리는 의원.

침통(鍼筒)[이] 침을 넣어 두는 작은 통. …

즉 ‘반질고리’를 ‘바느질고리’의 준말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편 의 사전을 따르면서 문세영·이운재의 사전들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된다. 그리고 ‘針’은 縫裁具(이때에는 長音)로 ‘鍼’은 醫療器로 아예 분리시키고 있는데 의미 구별과 음장의 구별은 《한영조년》(1897) 이후로 문세영·이운재의 사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 본래 ‘針’이든 ‘鍼’이든 간에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平聲으로 쓰였고 ‘바느질하다, 찌르다’와 같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去聲으로 쓰였던 것인데, 이로부터 보면 문법범주 차이에서 의미의 차이로 운소적 자질이 바뀐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반질고리(또는 반짓고리)’를 ‘바느질고리’의 준말로 처리하면 ‘바느질>반질’을 가정하여 어중 제2음절에서 ‘-’ 모음의 소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에 있다. 일종의 syncope현상을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2음절 이하에서 ‘·’나 ‘-’와 같은 약모음이 소실되어 음절수를 줄이는 현상

이 ‘ㄱㄹ치-(가르치-)>갈치-’의 예에서처럼 남부방언에서는 더러 있을 수도 있으나, ‘반진고리(-그릇)’를 주로 쓰는 중앙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좀처럼 없었기에 준말로 처리함은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중앙어에서는 ‘마음~마:口, 가을~가:ㄹ’ 등이나 일종의 apocope를 보인 ‘드르(ㅎ)>드:ㄹ, *고ㅁ(?)>고:口’ 등과 같이 잃어버린 음절에 대한 보상적 장음화를 흔히 겪은 방언인데, ‘반진고리(-그릇)’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음화가 찾아지지 않기에 ‘바느질->반질-’의 ‘으’모음상실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의 문헌들과 사전들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내려온 ‘바늘’을 ‘반진고리’와 비교해 보되 ‘*반(-질)’이 ‘바늘(-질)’의 준말이 아니라면 새로운 해석을 피하게 한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가정하게 되는 것이 ‘*반-’과 ‘바늘’의 관계로부터 ‘바늘’을 혹시나 ‘*반+울’과 같은 파생명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李崇寧(1956)과 李賢熙(1987) 등). 제주도방언의 ‘마농(蒜)’에 대해 ‘*만+웅’과 같은 파생명사를 가정하고 ‘바늘(針)(<*반+웅)’도 평행시켜 해석하게 된다. 여기서의 접미사 ‘-웅/웅’은 ㄱ+웅→기둥, ㅈ+웅→지붕 등에서 그것일 것이다. ‘*만+울>마늘>마늘’과 ‘*반+울>바늘>바늘’을 상정했던 李崇寧(1956)의 해석을 고려하여 李秉根(1999)에서도 ‘바늘’과 ‘반진고리’를 비교하여 ‘*반+울>마늘>바늘’을 가정해 두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반]+울>바늘>바늘 [*바늘(<*반+울)#-질>바느질>바느질
 [*반+-질]#-##[골회]> … >*반짓고리 > 반진고리 (cf. 골회>골회> … >고리)

와 같은 형성과정을 가정하게 되는데, 위의 예에서처럼 형태론적 구성에 남아 있는 옛모습을 비교 추출하여 ‘*반’을 재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 보면 ‘반진고리’는 ‘바늘, 바느질’에 비하여 옛형식을 잔존형으로 가진 채 화석화해 버린 셈이 된다. 同源語들의 분석을 통한 이러한 내적 재구의 방식은 전통적인 것이기는 하나 아직도 역사언어학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록 문헌상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단어라도 오히려 꽤나 오래된 단어형성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

다. 생활어가 문헌상에 반영되어 표기형식으로 전해져 오지 못한 일은 재구를 통한 역사 서술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한자어 ‘침(針)’은 현재 ‘바늘(縫具)’을 뜻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하나의 漢字語로서는 쓰이지 않고 이 ‘針’을 포함하는 漢字語로는 쓰이되 이때에는 長音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고, 《큰사전》 등에서 보인 것처럼 醫療器로서의 ‘침(鍼)’을 뜻할 때에만 독립된 단어로써 쓰이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는 漢字語의 경우에도 短音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을 놓는다/준다/맞는다”의 경우이다. 이때에 “바늘을 놓는다, 바늘로 놓는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바늘’로부터 한자어 ‘침(鍼)’이 의미분화를 일으켜 독립된 셈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지식영의 《字典釋要》(1909) 등과 같은 字典에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字典이 가지는 한자의 多義語 사용의 전통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針 縫具 바늘침 ○ 刺病 침침 鍼 鍼通 ○ 縫也 바느질할 침
○ 刺也 침줄침

말하자면 ‘針’이란 한자의 의미로는 본래의 의미인 ‘縫具(바늘침)’와 그로부터 파생된 의미인 ‘刺病(침침)’의 두 가지가 쓰이는 셈인데, 반대로 ‘바늘’과 ‘침’은 각각 분화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字典에서 ‘鍼, 箴’ 등에 대해서도 분화된 의미를 ‘見針’으로 제시하고 있다.³⁾

이제 이러한 바늘의 역사를 고려하여 현용하는 방언형들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하여 보자. 다만 방언형의 검토에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縫裁具로서의 ‘바늘’에 한정시키려고 한다.

4. ‘바늘’의 方言形들

3) 다만 19세기 후기의 기록으로 보이는 《廣才物譜》에는 ‘鍼’에 대하여는 ‘바늘’로 주석하여 衣服部로 분류하고 또 ‘鍼醫’에 대해서는 庶類部(醫)로 분류한 것을 보면 ‘針’과 ‘鍼’이 분명히 구분되지는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 ‘바늘’과 그 同源語에 대한 체계적인 방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늘, 바느질, 반질고리’ 등을 선택적으로 조사하기는 하였는데, 다행히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방언자료집》에는 ‘반질고리’라는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어도 남한 지역에서의 그 방언형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방언차가 크지 않은 ‘바늘, 바느질’은 생략하고서 이 ‘반질고리’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및 그 구성요소들의 어휘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반질고리’의 방언형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만 분류는 I. 반질-계통 II. 바늘-계통 III. 바늘-계통 IV. 반-계통 V. 발-계통 VI. 기타로 하여 ‘바늘’에 초점을 두되, 방언형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I. 반질-계통

- A. ① 반질그릇, 반질그릇, 반질글, 반질그릇
 ② 반질고리, 반질고리
 ③ 반질상자그릇
 ④ 반질광우리, 반질강저리
- B. ① 반질그릇, 반질끄름
 ② 반질고랭이
 ③ 반질땅세기, 반질땅석, 반질당시기
 ④ 반질짱저리

II. 바늘-계통

- A. ① 바늘쌍지, 바늘쌍주
 ② 바늘당세기, 바늘당시기
- B. ① 바느질뜨릇, 바느질그릇
 ② (바느질) 상지
 ③ 바느질당세기
 ④ 바느질소구리

III. 바늘-계통 : 바늘쌍지 cf. 바늘질

IV. 반-계통 : 반땅지기

V. 발-계통 : 발쌍지

VI. 기 타 : 강주리

동구리, 도방구리, 도방골
 (손끄름)

전국적으로 보아 I. 반질-계통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도 표준어 ‘반질고리’와는 달리 ‘반질그릇(-그릇)’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질고리’나 ‘반질그릇(-그릇)’의 ‘반질’은 바느질을 뜻하는 ‘반질’에 속격 -사이 결합되어 ‘-ㄹㅂㅅ-→ㅂㅅ-’의 자음군단순화를 입고(李秉根 1981) 그 결과 음절말에서의 /ㅂ/ > /ㄷ/과 같이 폐쇄음화한 것이다. 따라서 I.B의 ‘반질’형들은 속격 -사이 삽입되지 않았거나 드러나지 않은 형식들이다. II. 바늘-계통은 전남의 대부분 및 전북 고창 지역, 경북의 남부 및 경남의 중·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계통에는 ‘바늘’형과 ‘바느질’형이 있는데 ‘바느질’형은 [바늘+질]의 파생명사로 [-grave]의 자음인 /ㅂ/ 앞에서 유음 /ㄹ/이 탈락한 형식임은 물론이다. III. 바늘-계통은 제주도 전역에서, IV. 반-계통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V. 발-계통은 전남의 고흥 완도(이기갑 외 《전남방언사전》에서는 진도까지 포함) 지역에서 쓰이고 있고, VI. 기타 계통들은 극히 일부 지역들에서 산재되어 쓰이는 방언형들로 ‘반질고리’에 대한 대체 기구 명칭들이다.

‘반질고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반질(<반-질)#+ㅂㅅ#고리(…>골회)]의 구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고리’에 대한 대체형들 중에서 ‘상지’는 ‘상자(>상즈, 箱子)’의 변화형일 텐데,⁴⁾ ‘가즈(茄子)>가지, 손즈(孫子)~손자~손지~손주’ 등에 평행되는 변화를 입은 것으로 대체로 전남 지역에서 쓰인다. 그리고 ‘당석, 당세기, 당시기’ 등은 [당석(+이)]에서 유래한 한자어일 듯한데, 주로 경남북에서 쓰이며, 그밖에 ‘도방구리, 동구리, 광주리, 소구리’ 등은 유사한 의미의 담는 그릇들을 뜻하는 기구 명칭으로 ‘고리’의 대체형인데, 경기·강원·충남북·경북의 극히 일부 지역들에서 선택적으로 쓰인다.

이상의 여러 방언형들 중에서 현재의 관심은 ‘반질고리’의 제1구성요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반, 반질, 바늘, 바느질, 발’ 등이 그것이다. 우선 ‘바

4) 제2음절 이하에서의 ‘즈(子)>지’의 변화는 선구적인 ‘가즈(茄子)>가지’는 물론이고 ‘손즈>손지’ 등등 여럿이 있는데, 제2음절 이하에서의 ‘->-'의 변화를 전제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고유어의 경우 치찰음 아래에서의 ‘->|’는 흔히 후기근대국어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 *가즈>가지’는 이미 《訓蒙字彙》에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 한자어의 경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느질'은 [바늘+질]의 구성을 갖는 파생명사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grave]의 자음 앞에서 유음이 탈락한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공통적인 음운현상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이미 사전상의 '반진고리'에 대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반#-질]-스#고리]의 구성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서 어근 '*반'을 가정하였는데, 강원도의 북부 지역인 고성 지역에서 쓰이는 '반땅지기'가 이의 분석에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 이 '반땅지기'는 결국 [반#(-스-#)당지기]로 분석될 수 있는 방언형으로 함남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당지기, 당취기'는 '당석, 당서기, 당세기, 당시기'등과 같이 현대 방언에서는 '상자(箱子)'를 뜻하는 방언형이다. 이로부터 분석되는 어근 '*반'은 '바늘'의 어휘사를 서술하는 데에 지극히 값진 잔존형이 되는 셈이다. 즉 현대표준어형 또는 방언형 '바늘'은 모음조화를 고려하여 '*바늘'을 재구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을 [*반+올]의 파생명사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앞에서 문헌상의 자료를 통해서 '*바늘'을 그대로 어원으로 보든가 '반질'을 '바느질(바늘+질)'의 준말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방언의 '바늘'은 '*반+올'으로 분석될 터인데, '-올'과 같은 명사 파생접미사를 '*만+올>마늘'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은 '바늘'을 [*반+올]로 분석하는 형태사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송녕(1956)의 발상이 바로 이것인 셈이다.

현용되는 '반진고리'의 방언형들 중에서 재구되는 '*반'과 관련하여 보면 각각의 방언형 계통은 다음과 같은 비례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 | |
|----------------|----------------|
| I. *반 | *반+질>반질(-스#고리) |
| II. *반+올>바늘>바늘 | 바늘+질>바느질(>바느질) |
| III. *반+올>바늘 | 바늘+질>바느질 |
| IV. *반 | cf. 반땅지기 |

위의 네 계통 이외에 V. 발-계통이 남아 있다. 비록 전남의 일부 남해 지역에서 쓰이고는 있으나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발쌍지' 또는 '발상지'는 '발#(-스#)상지(<상즈)'를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렇다면 ‘*반’과 ‘*밭’이 대응되어야 할텐데 과연 이러한 대응이 가능할까. 나아가서 ‘*밭’이 딱 예들에서 또는 딱 지역에서도 확인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다른 예들에서 또는 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방언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헌상에서도 좀처럼 이 *밭-계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ㄹ/ > /ㄴ/ 이나 /ㄴ/ > /ㄹ/의 변화가 어말 위치에서 확인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반’과 ‘*밭’의 관계는 비록 /ㄴ/과 /ㄹ/ 사이가 공시문적인 자음동화나 유음탈락으로 보아 긴밀한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음운 대응으로는 설명될 수 없기에 어휘의미상의 대응(lexical-semantic correspondence)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崔鶴根(1978)의 《韓國方言辭典》에는 경상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언형들이 보이고 있다.

밭:ㄹ (합천) ~ 바닐
 바밭 (청도)
 밭 (왜관) ~ 돛빠늘
 뜻바:ㄹ (밀양)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뜻바:ㄹ’은 아마도 그 형태로 보아 ‘돛바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밭’의 존재이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들 지역의 자료는 ‘바늘, 바느질, 반질그릇, 바늘당시기’ 등이 일반적이다. 만일 ‘*밭’이 존재한다면 또는 존재했었다면 전남 해안 지역에서 보았던 ‘밭상지’의 ‘*밭’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崔鶴根(1978)의 자료는 성조 지역의 것임에도 성조 표시는 없이 음장 표시만이 더러 있다. 음장을 고려하여 ‘*바:ㄹ’을 상성으로 가정한다면 ‘*반’과 ‘*바: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조선시대의 문헌들 특히 중세어의 경우에 ‘바늘, 돛바늘, 바늘실~바느실’ 등으로 표기되어 성조가 대체로 ‘바늘’과 같이 平去型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늘’이 [*반+을]의 구성으로부터 온 파생어라면 파생어 형성에 관여하는 성조 변동이 규칙화되어야 [반+을]의 성조를 배정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필자이다. 명사파생접미사 ‘-을/을’의 경우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중세어의 예 들로는 이미 李賢熙(1987)에서도 여럿 제시하였지만

- 결+을 → 거·를 (cf. 거·르)
- 군+을(ㅎ) → 구·들(ㅎ)
- 낫+을 → 나·줄(>나·잘~나·절) cf. 반·나·절
- 몇+을 → 며·출
- 벗+을 → 벼·슬
- 숲+을 → 수·플
- 열ㅎ+을 → 열·홀
- 움ㅎ+을 → 우·물
- *끓+을 → 거·플
- *눔+을 → 나·물(>나·물)
- *일+을 → 이·틀

등등 많은 예들이 있어 2음절어의 경우 [거성(평성)+거성 → 평거성]으로의 변동이 보이기는 하나, 모두 이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확정하기가 어렵다. ‘·힘’에 대해서 ‘·허·물(過)’이 있기도 하나 ‘·벌(蜂)’에 대해서 ‘·버리’도 있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명사파생접미사 앞에서 모든 상성 어간이 平聲化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성조유형에 의한 해석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다. 또한 파생접미사 ‘-을/을’의 의미기능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위의 예들을 보면 어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이 있거나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을/을’에 의한 새로운 파생명사의 형성은 일찍이 활발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성조와 관계없이도 ‘*반’과 ‘*발’의 관계는 어간말자음 ‘-ㄴ’과 ‘-ㄹ’만으로는 이들 둘 사이에 일정한 음운대응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발’은 ‘*반’과는 별개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발’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현재 필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의심해 볼 수 있는 한 예로는 ‘·발(托)’이 있다.

- 원 예순 발 굴근 삼실로도(五六十托麤麻線也, 朴通事 초 上 18a)
 五六十발 굴근 삼실이라도(朴通事 중 上 17a)
 ㄹ독흔 닐곱발 남죽흐니(滿七托, 老乞大諺解 下 25b)
 촌 닐곱발이라(滿七托, 朴通事 중 上 14a)
 세 발(三托, 譯語 上 64b)

현대어에서는 바느질이나 특히 뜨개질을 할 때에도 “실을 켜 바늘로 한 번 뜯 자국”을 ‘땀, 바늘’ 대신에 ‘발’로 쓰는 일이 있다. 이 때의 ‘발’이 ‘바늘’이나 ‘실’과 함께 쓰이는 일이 종종 있다면 의미상으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남 해안 지역에서 쓰이는 ‘발상지’의 ‘발’과도 대응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고 증명할 수도 없다. 또한 ‘발’과 관련이 있을 듯한 예로 “부스럼 따위의 굵은 데를 찌는 침(길이 네치, 너비 두 푼 반 가량이고 양쪽 끝에 날이 있다 = 破鍼, 披鍼)”을 이르는 ‘바소’가 있다. 이에 대해서 ≪한불즈던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1880)에서는 이러한 뜻 외에 “버들가지로 만든 일종의 채롱”의 뜻도 포함하여

바소, Pa-so. 刀針. Grande aiguille pour percer un furoncle; espèce de hotte en osier

라고 풀이하였다. 이 ‘바소’가 만일 [*발#소]>바소라면 ‘발’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 G. J. Ramstedt(1949)에서는 ‘pasoi’로 지시하고 ‘a large flat needle used by native physicians’로 풀이하면서 ‘*pal-soi’를 재구하고 이에 따라 ‘바늘’도 *pal-ni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ㄹ>∅/___# [C -grave]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만일 이와같이 ‘*pal’로 본다면 ‘반진고리’를 유도해 내기는 여전히 어렵다. 말하자면 ‘*pal+질+ㅅ#꺾회’로 본다면 ‘*pal진꺾리’ 아니면 ‘*pa진꺾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al’을 가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일 ‘바소’의 재료로 ‘싸리가지, 버들가지’ 등을 썼다고 한다면 ‘발(簾), 발채, 바소구리’ 등에서의 ‘발’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되면 ‘*반’과 ‘발’ 사이의 관계를 음운대응이 아니라 어휘대응으로 처리해야 하고 나아가서 이 둘은 同源語로 처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현재 필자는 ‘*pal’을 가정함을 멈추고서 ‘바늘’을 ‘*반+을>바

늘>바늘'로 보고 싶은 것이며, 이 이상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해석이 비록 중도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과 방언에서 확인되는 어형들을 통해 '*반+울' 이상을 재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알타이제어 특히 통구스어군 고대 일본어의 반사형들로부터 *pal을 재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작시키고 싶지는 않다. 현재의 필자의 한국어 어휘사 서술의 한계이자 한국어 범위 속에서 작업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다.

5. 맺는말

지금까지 '바늘(針, 鍼)'을 뜻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문헌과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어형과 그 관련어휘 특히 '반질고리'의 여러 어형들을 자료로 하여 어휘사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는

*반+울>바늘>바늘
 *바늘+질>바느질>바느질
 [*반+질]#-ㅅ#골회> … >반질고리(cf. 반질고리)

등이었다. 단어형성과정의 형식으로 보면 '반질고리'의 '*반'이 상대적으로 역사가 가장 오랜 셈인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밭'이었는데, 이는 同源語로 보아 'ㄴ~ㄹ'의 음운대응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어떤 어휘대응의 가능성만을 의심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보면 일부 방언에서 또는 알타이제어 및 일본어에서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능력한계와 어휘사 서술의 범위로 인하여 논의를 더 이상 진작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못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가 아니라 간 데까지는 간 것으로 믿고 싶은 뿐이다.

'바늘'을 '*반+울'과 같은 파생명사로 처리하는 경우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중세어의 '숯~수플, 몇~며출, 열ㅎ~열홀' 등을 보면 '-.울/울'은 어근의 意味域을 한정시킴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

면 ‘*반+올’의 ‘*반’은 ‘바늘’이란 바느질기구로서의 의미보다는 좀더 넓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간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로 바늘 가는 데 실 간다는 식과 비슷하게 ‘바늘’을 뜻하는 漢字語 ‘針(鍼)’과의 관계가 있다. 바느질기구(縫裁具)로서의 ‘바늘(針)’과 의료기구로서의 ‘침(鍼)’ 이외에 ‘주사바늘~주사침, 시계바늘~시계침⁵⁾’ 등등과 같이 때로 ‘바늘’과 ‘침’이 함께 쓰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바느질기구(縫裁具)로서의 ‘바늘’을 한자어 또는 한문문장 속이 아니라면 ‘針’이라 하지 않으며 韓醫學에서는 醫療器로서의 ‘침(鍼)’을 ‘바늘’이라고도 잘은 하지 않는다. 물론 전통적으로 쓰여온 한자어 속에서는 ‘針’과 ‘鍼’이 ‘바늘’이나 ‘침’으로 섞여 쓰이는 경우가 종종 남아 있다. 본래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한 하나의 단어가 의미 분화에 따라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화하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각각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針’과 ‘鍼’을 漢字語 구성에서 각각 長音과 短音으로 구별하려 함은 同音異義語의 형성에서 보아 지극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늘’과 ‘침’의 분화는 문헌상으로는 15세기 말엽부터 그 싹이 보여 현대에 이른 것인데, 音長의 차이는 아마도 音長이 음운론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일 것이다. 동일한 한자가 의미 차이를 보일 경우에 일어나는 성조 변화 즉 變聲의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듯하다. 상이한 문자체계를 함께 써 온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분화현상인 셈이다.

*반+올>바늘(針, 鍼)>바늘(針) …………… 縫裁具 (漢字語의 ‘針’의 長音化)
cf. 뜨개질바늘
→ 침(鍼, 箴) …………… 醫療器 (韓醫學)
주사바늘(注射針) … 醫療器 (洋醫學)
cf. 낚시바늘(釣針)

5) ‘시계바늘’의 경우 “그속엔 긴바늘과 짧은바늘이 있습니다. … 두바늘은 刻針과 時針이라”(尋常小學 卷二 24b, 1896)에서와 같이 19세기 말엽에 ‘바늘’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時計’가 Gale의 《한영조년》(1897)에서와 같이 이미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初等小學》(1906)에서는 長針=分針, 短針=時針으로 각각 쓰였다.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바늘, 침’이 있다. 즉 ‘시곷바늘’이 그것이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時針, 分針, 秒針’과 같이 쓰이나 ‘시곷바늘’과 ‘시계침’과 같이 ‘바늘’과 ‘침’ 둘 다 쓰이게 된 것은 이에 해당되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면서 의미 분화를 분명히 연결시키지는 않은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뜨개질바늘(뜨개바늘)’은 李熙昇 편 《국어대사전》(1961) 등 이후의 사전에야 등재된 단어로 ‘뜨개질’의 등장 이후로 합성된 것이며, ‘뉘싯바늘’의 ‘바늘’은 ‘뉘시’ 자체로부터 확대된 것이다. 국어학 자료로서 저 유명한 《杜詩諺解》(七 4a) 〈江村〉의 ‘저문 아드룬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술 밍그는다(稚了鼓針作釣鉤)’에서의 ‘뉘(釣鉤)’으로부터 파생된 ‘뉘+이→뉘시(>뉘시)’를 거쳐 같은 의미의 ‘뉘싯바늘’로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늘’의 의미는 계속 확산되어 온 듯하다. ‘가시’에 대하여 흔히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것(銳針)”이라 정의되면서 ‘가시바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깨비바늘’을 일부 방언에서는 ‘도둑놈가시’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바늘, 침, 가시’ 등으로 굵은 곳을 찔러 고름을 짜내는 경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셈이다.

바느질을 실제로는 못하면서 설불리 ‘바늘’의 어휘사를 서술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든다. ‘바늘’의 어휘사를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찔려 피를 보지 않을지 모르겠다.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다.

참고문헌

- 姜憲奎(1989), 『韓國語語源研究史』, 集文堂.
- 高永根(1974), 『國語接尾辭의 研究』, 百合出版社
- 金敏洙 외(1997), 『國語語源辭典』, 太學社.
- 金芳漢(1990), 『語源論』, 民音社
-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상), 박이정.
- 박기영(1995), 「국어 유음에 대한 통시적 고찰」, 『國語研究』(서울대) 131, 1~86면.
- 成耆徹(1966), 「國語 接尾辭 片考」, 『蓮圃異河潤先生華甲紀念論文集』, 進脩堂
- 안병호(1985), 『계림류사와 고려시기 조선어』, 홍룡강조선민족출판사, 목단강.
- 안옥규(1989), 『어원사전』, 東北朝鮮民族出版社.
- 劉昌惇(1971), 『李朝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李基文(1993), 『國語語彙史研究』, 東亞出版社.
- 李男德(1985), 『韓國語語源研究』(I), 梨花女大出版部.
- 李秉根(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223~246면, 한글학회.(李秉根·宋喆儀, 國語學講座 4 音韻 I(1998), 44~66면에 再收錄).
- 李秉根(1999), 「‘지느러미(奔水)’의 語彙史」, 『國語學』 34, 227~243면, 國語學會.
- 李崇寧(1956), 「接尾辭 -k(g), -ŋ에 대하여」, 『서울大學校論文集』 4, 79~200면, 서울大學校.
- 李賢熙(1987), 「국어의 語中·語末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4, 225~282면, 한신대학교
- 崔鶴根(1978), 『韓國方言辭典』, 玄文社.